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정은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정은

인준서

박정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여성 148명이었다. 자기의 통합 및 분화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관적 안녕감 척도, 문화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 정서를 많이 느꼈으며, 자기통합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정서를 많이 느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개인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 부적 정서를 적게 느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종합하건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문화성향의 정도에 따라 자기의 통합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주관적 안녕감, 문화성향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주관적 안녕감.....	1
2) 자기.....	3
3) 문화성향.....	8
2. 연구 문제.....	11

II. 이론적 배경

1. 자기.....	12
1) 통합된 자기와 분화된 자기.....	12
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14
2. 주관적 안녕감.....	16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16
2)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17
3. 문화성향.....	18
1)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18
2)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20

Ⅲ. 연구방법	
1. 예비연구.....	23
2. 본 연구.....	25
1) 연구 참가자.....	25
2) 측정도구.....	26
(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통합 측정 과제.....	26
(2) 주관적 안녕감 척도.....	29
(3) 문화성향 척도.....	30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31
3) 연구 설계 및 절차.....	31
4) 분석 방법.....	32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2.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37
3. 자기의 통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39
3-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39
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39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0
3)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0

3-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1
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1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1
3)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2
3-3.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3
1)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3
2)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3
3)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4
3-4.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6
1) 통합자기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6
2) 통합자기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6
3) 통합자기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6

4.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48
4-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8
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8
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8
3)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9
4-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0
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0
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0
3)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0
4-3. 분화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2
1)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2
2)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2
3)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3

4-4. 분화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5
1)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5
2)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5
3)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55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57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5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주관적 안녕감

요즘 주변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복과 관련된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행복마을 만들기(중부매일, 2015년 1월 28일 기사), 행복주택(뉴시스, 2015년 1월 29일 기사) 등 국가 주도의 각종 사업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또한, 행복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Diener, 1984, 200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처럼 행복에 대한 높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행복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Fromm(1956)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에게 행복은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중요한 목표인 만큼 학문적 관심 역시 있어왔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Martin Seligman 등이 주축이 되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영역을 탄생시킨 이후(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Sheldon & King, 2001) 인간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에 힘입어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이재신, 이지혜, 2011; 차경호, 2004; Diener, 1984, 1995, 2000; Oishi & Diener, 2001; Srivastava, Locke, & Bartol, 2001).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변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 빈번한 긍정 정서 경험 및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 경험을 포괄하는 변수로서, 객관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리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그렇다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흔히 외적인 조건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러한 일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행연구들에서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 상태와 같은 외적 변수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 등을 모두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의 8-15%만을 설명하였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이에 반해, 성격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52%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Larsen, 1984).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역시 위와 유사하다. 한 연구에서 행복 수준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및 상황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3%만 설명하였으나, 심리적 변수들은 개인차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관점은 행복 판단, 즉 삶의 만족도와 회고적으로 측정된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를 18% 설명했으며, 내적 동기와 의미감은 행복 경험의 40% 이상을 설명했다(구재선, 서은국, 2011). 또한, 자기개념 관련 변수들 역시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05). 일례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이기재, 최해림, 2009).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 대한 지식의 내용이나 구조를 통합하여 명료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높은 주관

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친다.

2) 자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자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Higgins, 1987; Higgins, Bond, Klein, & Strauman, 1986; James, 1890; Linville, 1987).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개념의 조직화 방식에 관심을 두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기개념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분화된 체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기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기개념 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완일, 2008). 다양하고 복잡한 자기개념을 가지는 것을 자기 분화라고 한다. 자기 분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에는 Linville(1987)의 자기복잡성 이론이 있다. Linville(1987)은 자기지식들로 구성된 인지적 표상의 복잡성을 자기복잡성이라 정의했는데,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복잡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순, 2012; Dixon & Baumeister, 1991; Linville, 1985). 그리고 한 사람의 역할에 따른 자기개념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인 자기개념 일치성이 높고(Donahue, Robins, Robert, & John, 1993), 자기개념이 시간이 경과해도 분명하게 정의되며(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자기개념이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정도인 자기개념 명확성(Campbell, 1990)이 높을수록 자기개념의 통합이 잘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의 분화와 관련되어 위에 언급된 연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Linville(1987)은 자기가 얼마나 다양한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

는 자기복잡성을 제시하였다. 자기측면이란 인간이 다양한 역할, 관계,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의 모습이다(김옥란, 김완일, 2013). Linville(1987)은 자기복잡성 완충 가설, 즉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하고 서로 변별되는 자기측면들이 스트레스 완충역할을 해서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Linville(1985, 1987)은 자기개념의 분화 정도를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을 성격특질 형용사 분류기법을 통해 분류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이나 우울 등과 같은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옥란, 김완일, 2013; 김완일, 2012).

한편, Higgins(1987)는 서로 다른 자기 영역에 대한 연구를 자기 불일치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자기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영역의 자기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기가 존재한다(Higgins, 1987; Higgins et al. 1986; Strauman & Higgins, 1987). 구체적으로, 자기의 세 가지 영역에는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그리고 의무적 자기(ought self)가 있다. 실제적 자기는 한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의 표상을 의미하며, 이상적 자기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는 속성의 표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자기는 개인이 꼭 소유해야만 한다고 믿는 속성의 표상을 의미한다(Higgins, 1987).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기에는 개인 자신의 관점에서 직접 바라보는 자기와 부모, 친구, 배우자 등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기가 포함된다(Higgins, 1987). 자기 불일치 이론을 근거로 자기들의 불일치와 관련된 정서가 연구되었다(최정원, 이영호, 1998; Higgins et al., 1986). 자기 불일치 이론에서는 실제자기가 이상자거나 당위자기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자기 불일치가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됨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Higgins et al., 1986; Higgins, 1987; Strauman

& Higgins, 1988). 본인 관점에서 지각된 실제자기와 이상자기 간의 차이는 긍정적 결과의 부재로 인해 낙심, 슬픔, 우울과 같은 낙담정서를 유발하고, 자기 관점에서 지각된 실제자기와 당위자기 간의 불일치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제재, 처벌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염려로 초조, 긴장, 걱정 등의 불안 정서를 불러일으킨다(Strauman & Higgins, 1987). 자기 불일치는 정서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자기와 이상자기 간의 차이가 크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원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다른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잃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실제자기와 당위자기 간의 차이가 크면 공포,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Higgins, 1989).

반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정도,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료성(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y, & Lehman, 1996)은 스스로의 확신 정도, 정보들 간의 시간적 안정성과 내적 일치도를 통해 측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김완일, 2008), 더 나아가 심리적 건강, 불안 및 우울 등과 연관되어 연구되었다(Beck, Steer, Epstein, & Brown, 1990; Brady & Kendall, 1992; Campbell, 1990; 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 Campbell, et al., 1996).

위에 개관한 바와 같이, 자기개념이 다양하게 분화된 것과 통합된 것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자기개념의 분화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자기개념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Donahue et al., 1993; Higgins, 1987; Higgins et al., 1986; Strauman &

Higgins, 1987), 이와는 반대로 분화된 자기개념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Linville, 1985, 1987; Showers, 1992).

자기개념이 통합된 것과 분화된 것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과 분화 중 어느 것이 심리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이 심리적 건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Linville(1985)의 자기복잡성 완충 가설 모델에 기초한 후속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분화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Hershberger, 1990), 자기복잡성의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ino, 1995), 오히려 다양한 자기개념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완일, 2008). 그리고 Linville(1985)의 자기복잡성 모델을 발전시켜 자기개념 분화와 관련된 또 다른 모델인 구체화 모델을 주장한 Showers(1992)의 주장 역시 후속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김완일, 2008). 그리고 자기 분화와 통합이 심리적 건강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Constantino, Wilson, Horowitz, & Pinel 2006), 자기개념 분화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없으나 자기개념 통합은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분화된 자기와 관련된 자기복잡성과 자기구획화는 심리적 적응 지표와 상관이 없는 반면에, 통합된 자기와 관련된 자기개념 명료성과 자기개념 일치성은 심리적 적응과 상관이 있다는(Campbell et al., 2003)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자기의 분화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기의 통합은 심리적 건강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방향의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기개념 관련 변

수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박선영, 2005),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이기재, 최혜림, 2009)가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통합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자기개념의 분화는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에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위의 논쟁을 해결하는데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통합 및 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측정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다. 자기개념의 분화 및 통합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 가운데 자기의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의 통합 및 분화가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분화 및 통합에 관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이다. 자기의 사적 측면, 즉 사적 자기는 사람의 특질, 상태, 혹은 행동을 포함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정직하다." 등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기의 공적 측면, 즉 공적 자기는 자기에 대해 일반화된 다른 사람의 관점에 관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내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사적 자기는 자기에 의한 자기 평가이며, 공적 자기는 일반화된 타인에 의한 자기 평가이다(Triandis, 1989).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된 정도와 분화된 정도를 측정 후,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 혹은 통합 수준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통합 수준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통합 측정 과제를 통해 얻어진 반응 시간과 반응 비율을 통해 측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edlovskaya, Purdie-Vaughns, Eibach, LaFrance, Romero-Canyas와 Camp(2013)는 공적 자기 도식과 사적 자기 도식을 나누기 위해 성격 형용사 구분 과제를 실시했다. 연구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형용사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중 어느 쪽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Sedlovskaya(2013) 등은 이 과제를 통해 얻어진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잘 구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반응시간이 느릴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잘 구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형용사 판단과제를 제시하고, 반응시간에 기초하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 및 통합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자기개념 중 통합된 부분과 분화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분화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문화성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3) 문화성향

문화성향은 크게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구분된다(Triandis, 1989).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고유한 자기를 중요시하고 자아실현이나 개인의 성취에 집중한다.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조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단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목표 달성을 희생할 수도 있다(Triandis, 1995).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차이는 자기

일관성에 대해 가진 서로 다른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Kitayama & Markus, 1998).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일관성이 인간 성장의 증거로 여겨지지만,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자기 일관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Cross, Gore, & Morris 2003). 일례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Suh, 2002). 자기 일관성에 대한 문화권에 따른 차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 일관성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일관성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효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해주었으나, 한국에서는 자기 일관성보다는 사회적 평가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삶의 만족감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Suh,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기 일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였다(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요컨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일관성 있는 자기 모습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일관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중 자기를 가진 모습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Suh,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분화되어 일관성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분화된 자기 모습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분화된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이 가지는 부적인 관계가 약하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분화된 자기 모습을 자기 일관성이 없는 것으

로 받아들여 분화된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이 가지는 부적인 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자기의 분화 및 통합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는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성향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가설 2-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는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는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

1) 통합된 자기와 분화된 자기

자기(self)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외현적 특성 그 자체와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한 것으로, 지속성과 순간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구성개념이다(Markus & Wurf, 1987). 자기는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공유되어 온 의미체계와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므로 역사 및 사회문화적으로 조성된 환경의 산물로 간주된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자기에 대한 연구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한 James(1890)는 자기가 다양한 것들로 구성된 복합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자기의 형성에서 개인이 접하는 사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 현상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 역시 자기의 정의에 포함된다. 그리고 James(1890)는 사회관계나 물질적 소유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를 다룬 선행 연구들(Epstein, 1973; Markus, 1977, 1990; Marsh, Relich, & Smith, 1983; Wylie, 1961)에 따르면 자기는 외부세계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하며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동일한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기는 다양한 과거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서,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지님으로써 신체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적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는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 조직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따라서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자기개념은 점점 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연구는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개념의 내용적 측면은 자기 자신을 기술하는 지식 및 정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자기가치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긍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oolfolk et al, 1995).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기개념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분화된 체계로 정의하고 자기개념의 조직화 방식에 관심을 둔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는 자기개념은 다양한 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서,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기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자기개념 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완일, 2008).

자기의 분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Linville(1987)의 자기복잡성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측면들의 조직화 방식이 심리적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자기측면은 인간이 다양한 역할, 관계, 상황 등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의미한다(김육란, 김완일, 2013; McConnell, Renaud, Dean, Green, Lamoreaux, Hall, & Rydell, 2005). Linville(1987)은 자기지식들로 구성된 인지적 표상의 복잡성을 자기복잡성이라 정의했다. 자기복잡성은 자기측면들의 수와 자기측면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복잡성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Linville, 1985). Linville(1987)은 자기복잡성 완충 가설에서,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하고 분별력 있는 자기측면들이 스트레스 완충 작용을 해서 우울을 적게 느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패 후의 자기도피에 관한 연구(Dixon & Baumeister, 1991), 자기 관련 사고의 억압에 관한 연구(Renaud & McConnell, 2002), 정신분열증 치료(Martens, 2009), 대학생들의 우울증 예방(Kawahito, Hori, & Otsuka, 2010), 신경증적 경향과 투사로 인한 부부갈등의 완화(이상순, 2012)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자기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Donahue et al., 1993). 통합된 자기에 대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내적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Campbell 등(1996)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 존중감, 긍정정서의 경험, 외향성 등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우울, 불안, 부정정서의 경험 등과 부적적으로 관련됨을 보임으로써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ampbell(1990)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존중감, 자기평정의 일관성이 낮고, 자기평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자기평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적 상황과 단서들에 대해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특히 외부의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서들에 대하여 더 쉽게 부정적 정서상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분화된 자기 및 통합된 자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기의 분화 정도를 자기복잡성(Linville, 1985)이나 자기구획화(Showers, 1992)로 측정하였으

며, 자기의 통합의 정도를 자기명료성(Campbell, 1990)이나 자기일치성(Donahue et al., 1993)으로 측정하였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김완일, 2008; 조은영, 임성문, 201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기의 분화 및 통합 정도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를 통해 측정해보고자 한다.

Triandis(1989)는 모든 사람에게 공존하는 세 가지 유형의 자기로 사적 자기, 공적 자기, 그리고 집단적 자기를 제안했다. 그는 사적 자기란 자신의 성격, 정서, 행위와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는 적극적이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공적 자기는 타인에서 알려진 자기 모습으로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를 순하다고 본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자기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자기를 의미한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개념이 서로 구분이 되며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riandis, 1989).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차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미국인들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시도했다(Iwao & Triandis, 1993).

Triandis(1989)에 따르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는 서로 구별 가능한 존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자기의 모습을 별개로 인식하는 정도와 두 자기를 하나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분화 정도와 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Seligman과 Csikzentmihalyi(2000)에 의해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행복을 정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는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두 가지의 세부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두 가지 세부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감정적 측면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쾌락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적 측면으로서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Diener(1984)도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되는 행복이다. 이 관점에서 행복은 삶의 만족이라 일컬어지고 개인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가 달라진다. 이는 인지적 평가가 중시되는 입장으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즉, 행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 볼 수 있다. 둘째는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 입장에서는 정적 정서 경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을 정리하여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이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 및 많은 긍정적 정서의 경험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공통된 점은 주관적 안녕감이 최소한 두 개의 일반적인 측면, 즉 정서적 안녕감인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와 인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Diener, 1984, 1995, 2000; Myers & Diener, 1995; Veenhoven, 1991).

2)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Monica, Greg과 Elliott(2001)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신건강을 예측 하는 주요변인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존중감, 긍정정서의 경험 및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우울 및 부정 정서의 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등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ampbell et al., 1996). 그리고 Campbell 등(2003)은 자기개념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분화와 관련된 자기복잡성과 자기구획화는 심리적 적응 지표와 상관이 없는 반면에, 자기 통합과 관련된 자기개념 명료성과 자기개념 일치성, 즉 역할에 따른 자기개념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는 심리적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onstantino 등(2006)은 자기복잡성 및 통합성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기개념 분화 정도는 심리적 적응과 상관이 없는 반면에 자기개념 통합 척도들은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했으며, 문정하(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생활 만족감과 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또한 김완일과 김재환(1992)은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다. Rafaeli-Mor와 Steinberg(2002)는 자기복잡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며 Donahue 등(1993)은 역할에 따라 다르게 자신을 봄으로써 다양한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그렇

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

종합하건대,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자기개념 일치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일치된 정도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문화성향

1)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Matsumoto와 Juang(2013, p. 21)에 따르면, 문화란 “한 집단이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집단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과 웰빙을 추구하며 삶에서 의미를 도출하도록 해주는 독특한 의미와 정보 시스템”이다. Hofstede(1980)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들을 비교할 수 있는 네 가지 차원으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도, 여성적-남성적 성향,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주의란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에서 발견되는 경향이며, 반대로 집단주의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 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고 평생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소속집단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사회에서 발견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다문화 관점으로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을 여러 국가나 사회에 걸쳐 구분되는 구성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이자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단일문화 관점으로서 개인주의와 집단주

의의 구분을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존재하는 개인차로 보는 관점이다(김경민, 박동건, 2011). Triandis(1994)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개인 차원의 심리적 속성으로 개념화하여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의 상대적 특성들을 규정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독립적 개인으로 간주하고 내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지만,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의 목표보다 내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고유성에 따른 자아정체성을 중요시하고 자아실현과 개인의 성취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개인은 집단소속감에 따른 자아정체성을 가지며, 집단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집단목표 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Triandis, 1995). 두 성향의 사람들은 주된 귀인유형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성공을 내부귀인하고 실패는 외부귀인 하는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성공은 외부귀인하고 실패는 내부귀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Triandis, 1994).

Hui와 Triandis(1986)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개인차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문화 수준에서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양극 차원이 한 개인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Triandis, 1989, 1994,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는 동일한 문화에 속해있을지라도 개인마다 자신의 문화에서 추구되는 가치나 신념을 수용하고 따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승범, 박혜경, 2013). 국내에서 진행된 개인의 문화성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성향이 개인차 변수임을 보고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차재호, 정지원(1993)은 연령, 거주환경, 교육수준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적인 성향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성열, 안창일(1990)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개인차 변수로 연구한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김정덕, 모경환, 2011; 우영지, 이기학, 2011; 이재식, 2013; 장수지, 김수영, Kobayashi, 2014; 조궁호, 김소연, 1998; 조궁호, 김은진, 2001; 조궁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조궁호, 이재영, 2007; 홍승범, 박혜경, 2013; Benet-Martinez, Leu, Lee, & Morris, 2002; Fu, Morris, Lee, Chao, Chiu, & Hong, 2007) 문화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 간 비교뿐만 아니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도 가능(Kagitcibasi, 1997; Triandis, 1994, 1995;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 & Zaleski, 1993)하다는 것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2)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전통적인 서구의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한다(Festinger, 1957). 자기 일관성을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측면으로 여겼기에 개인이 여러 상황에 걸쳐 일관된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며, 상황에 따른 비일관성을 보이는 등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불안, 혼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여겼다(Lecky, 1945). 그러나 자기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기능하는 사회문화적 산물(Bruner, 1990)이므로, 상황적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일관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 간주하는 것은 자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복합적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육근영 등, 2006). 문화권에 따라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행위의 인식, 경험하는 정서, 삶의 동기 등과 같은 포괄적인 부분에

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북미나 유럽과 같은 독립적 자기 해석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내적 속성들을 중요시하며 독립적이고 안정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반면, 동아시아와 같은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관여하는 관계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Markus & Kitayama, 1991).

개인의 문화성향을 본 연구의 조절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기와 사적인 자기 간의 차이는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차이가 심리적 적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일관성은 북미 문화권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다르게 평가된다(Kitayama & Markus, 1998). 동아시아 사람들은 북미 사람들과는 반대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에서 정보를 찾거나, 자기와 외집단 구성원들과의 거리를 두고 내집단 구성원과는 통합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Heine, 2001). 동아시아 사람들은 상황에 걸쳐 그들 스스로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 일관성을 훨씬 덜 가졌다고 표현했는데(Suh, 2002), 상호의존적인 자기를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일관성은 사회적 행동과 안녕감에 덜 중요하며, 관계적 자기 개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일관성과 안녕감은 강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즉 상호의존적인 자기를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일관성은 사회적 행동과 안녕감에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Cross, Gore, & Morris, 2003).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일관성 있는 사람은 상황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에 비해 호의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반면, 북미 문화권에서는 일관성이 성숙과 독립의 증거로 여겨진다(Cross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 통제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자아 일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의 차이를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즉, 개인 내 변수로 문화성향을 측정하여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 것이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위와 같은 부적 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와 주관적 안녕감 간 부적 관계가 약화되는지 확인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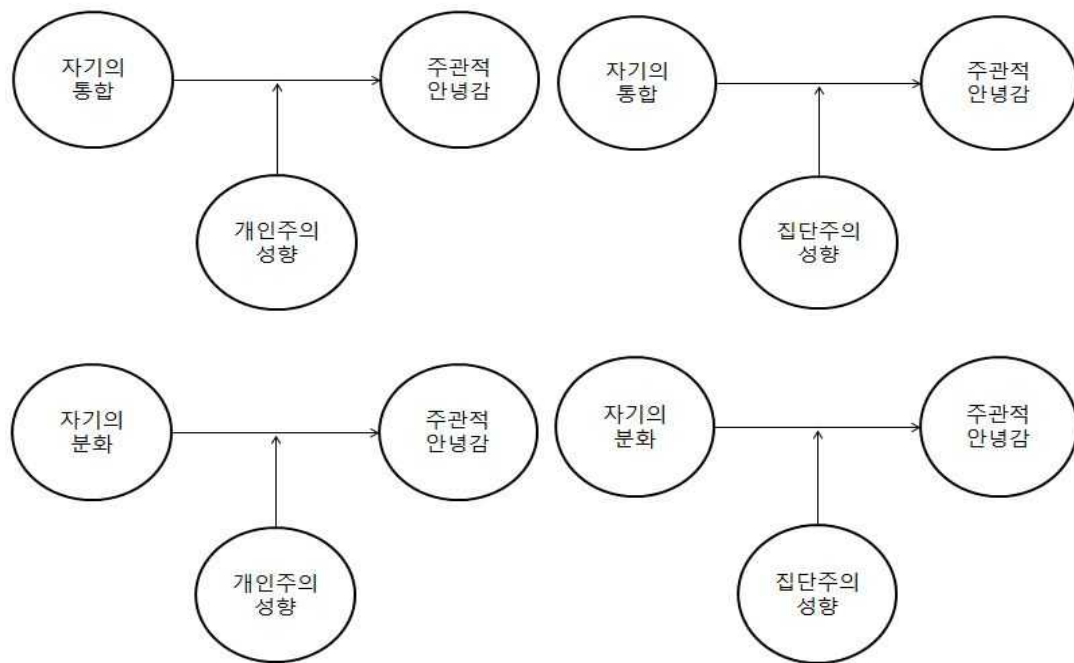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예비연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특질 형용사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연구에는 한국 문화 맥락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Anderson(1968)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단어들이 중요하게 의미를 가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555개 단어 중 200개의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200개의 단어들 중 사람의 자기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 형용사들 64개를 연구자가 선택하여 지도교수 및 사회심리학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하였다. 한 단어가 한글로는 복수의 뜻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어 총 96개의 한글 번역 형용사들 목록이 작성되었다. 번역된 형용사들을 32문항씩 3개의 목록으로 나누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연구는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 1999)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대학교 재학생들 및 휴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참가자의 수는 총 77명(모두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22.17세($SD = 2.59$)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특질 형용사가 사람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5점: 매우 적절하다)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평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형용사를 선택할 때 평정치 평균이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00 이상인 형용사들을 선택한 결과, ‘잘 잊어버리는’, ‘실득력 있는’을 제외한 94개의 형용사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표 1). 3.00 이상인 형용사들을 선택한 이유는 사용된 척

도가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하여 중앙 값 이하의 평균값을 가진 형용사들은 본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계획했던 대학생들의 기준에서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표 1.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형용사들

형용사 목록		
용감한	소심한	인정 없는
대담한	우유부단한	매정한
조심스러운	겉이 많은	욱하는 성미가 있는
신중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짜증을 잘 내는
완벽주의적인	침착한	반항적인
흥분을 잘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조용한	서투른	자만하는
충동적인	눈치 없는	진실 되지 못한
종잡을 수 없는	불안정한	가식적인
감정적인	완고한	말솜씨가 좋은
수줍음을 타는	고집스러운	순종적인
물질주의적인	일관성 없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속물적인	소유욕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의존하는	기분변화가 심한	자부심이 있는
자의식이 강한	지배하려드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비관적인	우울한	수다스러운
별로 말이 없는	비관적인	깔끔한
말수가 적은	비사교적인	현실적인
건망증이 있는	무뚝뚝한	실리적인

학구적인	원기 왕성한	시간을 잘 지키는
탐구적인	솔직한	규칙적인
태평한	숨김없는	이해심 있는
외향적인	느긋한	배려심 있는
차분한	호기심이 강한	사려 깊은
자기비판적인	사교적인	따뜻한
이상주의적인	붙임성 있는	재미있는
진지한	상상력이 풍부한	유머가 풍부한
논리적인	너그러운	책임감 있는
분별 있는	야망을 가진	마음이 넓은
합리적인	조심성 있는	관대한
창조적인	민첩한	
창의적인	단정한	

2. 본 연구

1)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내 게시판과 대학생 커뮤니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브리타임팀, 2009)에 게시된 연구 참가 광고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만 20세 이상의 여성 148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반응시간의 개인평균이 표본 전체의 평균에서 $\pm 2.5SD$ 이상인 경우인 3명을 제외한(류지현, 2010; 한보연, 박예지, 배경란, 임동선, 2014) 총 1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만

27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67세($SD = 2.01$)였다. 연구 절차를 모두 마친 연구참가자들에게 사례로 현금 3천원을 지급했다.

2) 측정도구

(1)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 측정 과제

Sedlovskaya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를 측정하는 과제를 개발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화면에 제시된 특질 형용사가 공적인 자기를 잘 표현하는지 사적인 자기를 잘 표현하는지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과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실험 프로그램인 Paradigm(Perception Research Systems Inc., 2007)을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특질 형용사들을 분류하는 과제를 만들었다.

과제는 크게 연습시행과 본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연습시행의 목적은 연구참가자들이 판단과제에서 사용되는 숫자 키와 그 의미를 학습하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판단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연습시행에서는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둘 다 표현함’,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들에 각각 10번씩 무작위로 순서대로 화면에 제시되었고 연구참가자들에게 각 단어에 맞는 숫자 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 공적 자기, 2: 사적 자기, 3: 둘 다 표현함, 5: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음).

본 시행에서는 예비연구에서 선정되었던 특질 형용사들이 하나씩 무선적으로 화면에 제시되었다. 제시된 형용사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모습에 모두 해당되거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둘 다 해당됨’ 선택지와 ‘어느 자기 측면에도 해당되지 않음’ 선택지도

제공되었다. 요컨대, 연구참가자들은 제시된 형용사들을 네 가지 범주(공적 자기, 사적 자기, 둘 다 표현함, 어느 쪽도 표현하지 않음)로 분류하였다. 각 형용사의 제시부터 반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 형용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주의초점 +가 500ms동안 제시되고 자동으로 사라졌다. 예비연구를 통해 선택된 94개의 형용사들과 박혜경 (2011), Lee, Park와 Uhlemann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 33개를 통합한 127개의 형용사를 연속적으로 분류하는 과제가 연구참가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 63번의 시행과 64번의 시행으로 구성된 두 개의 블록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선택된 형용사 이외에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33개를 추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좀 더 다양한 특질의 형용사를 제시하여 측정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블록이 끝나고 연구참가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휴식을 취한 후 두 번째 블록을 실시하였다. 두 블록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에 상쇄평형화되었다.

표 2.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들

형용사 목록		
용감한	종잡을 수 없는	별로 말이 없는
대담한	감정적인	말수가 적은
조심스러운	수줍음을 타는	건망증이 있는
신중한	물질주의적인	소심한
완벽주의적인	속물적인	우유부단한
흥분을 잘하는	의존하는	겉이 많은
조용한	자의식이 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충동적인	비판적인	침착한

걱정을 많이 하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호기심이 강한
서투른	자존심이 강한	사교적인
눈치 없는	자부심이 있는	붙임성 있는
불안정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완고한	수다스러운	너그러운
고집스러운	깔끔한	야망을 가진
일관성 없는	현실적인	조심성 있는
소유욕이 강한	실리적인	민첩한
기분변화가 심한	학구적인	단정한
지배하려드는	탐구적인	시간을 잘 지키는
우울한	태평한	규칙적인
비관적인	외향적인	이해심 있는
비사교적인	차분한	배려심 있는
무뚝뚝한	자기비판적인	사려 깊은
인정 없는	이상주의적인	따뜻한
매정한	진지한	재미있는
욕하는 성미가 있는	논리적인	유머가 풍부한
짜증을 잘 내는	분별 있는	책임감 있는
반항적인	합리적인	마음이 넓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창조적인	관대한
자만하는	창의적인	정직한
진실 되지 못한	원기 왕성한	유능한
가식적인	솔직한	진실한
말솜씨가 좋은	숨김없는	의리 있는
순종적인	느긋한	쾌활한

이기적인	독립적인	성실한
냉정한	박식한	타협을 쉽게 하는
까다로운	부지런한	협조적인
건방진	자유로운	자기를 희생하는
지저분한	독창적인	호의적인
상냥한	자립심 있는	신뢰할 만한
경쟁적인	자신감 있는	예의 바른
리더쉽 있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인내심 있는
목표 의식이 있는	공손한	
개성 있는	호감이 가는	

(2) 주관적 안녕감 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차경호(2005)가 번안한 것과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제작한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역한 것을 이용해 측정되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있다(부록).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NAS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을 재미있는, 힘찬 등의 긍정적 정서 단어 10개와 괴로운, 초조한 등의 부정적 정서 단어 10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3). 평정은 5점 척도(1: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많이 느낀다) 상에 이루어

질 것이다.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낮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역채점한 부정 정서 값을 z-score로 변환하여 평균 했다. 차경호(2005)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으며,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연구에서 PANAS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7과 .84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7과 .82였다.

표 3. PANAS의 긍정 정서 단어와 부정 정서 단어 문항 번호

긍정 정서 단어	부정 정서 단어
1 4 5 8 9 12 14 17 18 19	2 3 6 7 10 11 13 15 16 20

(3) 문화성향 척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가 제작하고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상으로 표준화한 문화성향 질문지(Individualism-Collectivism; INDCOL)를 사용했다. 이 척도에는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4).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집단주의 문화 성향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

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 평정 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개인 주의,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5와 .82였다.

표 4. 문화성향 하위척도 문항 번호

개인주의적 성향	2 4 6 8 10 12 14 16 18 20(역) 22 24 26 28 29 31
집단주의적 성향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30 32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적 분석을 위한 통제를 위해서 본인의 나이, 성별, 현재 거주지, 직업, 최종 학력, 부모의 직업과 최종 학력 및 월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 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실험 프로그램인 ‘Paradigm’이 설치된 컴퓨터가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참가자가 도착하면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가의 자율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을 제공했다. 연구참가자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난 뒤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형용사 판단 과제 수행에 앞서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습 시

행을 실시했으며, 이후 본 시행을 실시했다. 연구참가자들이 형용사 판단 과제를 끝낸 뒤 질문지를 제공했다. 질문지에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 문화성향 척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관련 문항들(연령, 성별, 거주지, 학력, 가계소득)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문화성향 척도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에 상쇄평형화 되었다. 연구참가자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금 3천원을 제공하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 사후설명을 제공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화된 자기와 통합된 자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가지는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화된 자기(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와 통합된 자기, 주관적 안녕감 및 문화성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판단 과제와 관련해서는 총 127개의 특질 형용사들 가운데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즉,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모두에 해당)로 각각 분류된 형용사들의 비율과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로 각각 분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첫째,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 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각각 공적 자기, 사적 자기 및 통합된 자기 선택 빈도를 127개의 형용사들 가운데 자기의 어느 측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형용사들의 개수를 뺀 값으로 나누어주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공적 자기 비율과 사적 자기 비율을 합산하여 분화된 자기 비율을 산출하였다. 요컨대, 분화 자기 비율과

통합 자기 비율의 값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내에서 해당 자기 측면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둘째, 반응시간을 분석할 때에는 평균에서 $\pm 2.5SD$ 이상인 값을 제외하였던 선행 연구들(류지현, 2010; 한보연 등, 2014)을 참고하여, 먼저 극단값을 제외했다. 이와 같이 산출된 반응시간 값이 클수록 반응을 느리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분화된 자기 반응빈도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 반응횟수를 합친 값을 전체 반응 값에서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반응한 값을 제외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통합된 자기 반응빈도는 둘 다 해당됨을 선택한 반응횟수를 전체 반응 값에서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반응한 값을 제외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된 반응빈도 값이 클수록 해당 반응을 많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 안녕감을 말한다(박경혜, 2004; 허현정, 2004).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척도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따로 살펴보았다. 문화성향 척도의 두 하위 척도는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으로, 집단주의 성향 점수와 개인주의 성향 점수는 각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 16개 문항에 대한 반응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척도에서 산출된 값이 클수록 해당 문화성향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 문화성향 척도 각각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분화된 자기와 통합된 자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가지는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분화된 자기, 통합된 자기와 주관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 측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반응시간평균이 표본 전체의 평균에서 $\pm 2.5SD$ 이상 벗어난 연구참가자들을 제외(류지현, 2010; 한보연 등, 2014)한 결과, 전체 148명 중 3명이 제외되어 총 1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는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67세($SD = 2.01$)였다. 부친의 학력수준은 대졸자가 가장 많았고, 모친의 학력수준 역시 대졸자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장여부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은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단, 전체 응답자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힌 것은 아니어서, 부친 학력, 모친 학력, 부모직장여부, 월평균 소득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145명보다 적은 수가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절효과 분석 시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본인의 나이와 학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월 평균 가계 소득)이 통제되었다.

표 5.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i>n</i>
성별	여성	145
부친 학력 (<i>n</i> = 135)	중졸 이하	1
	고졸	36
	전문대졸	9
	대졸	73
	대학원 이상	16
모친 학력 (<i>n</i> = 134)	중졸 이하	1
	고졸	51
	전문대졸	12
	대졸	59
	대학원 이상	11
부모 직장여부 (<i>n</i> = 130)	부친 외벌이	58
	모친 외벌이	1
	맞벌이	70
	모두 무직	1
월평균 소득 (<i>n</i> = 123)	200만원 이하	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17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	23
	4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22
	5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14
	6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하	14
	700만원 이상 ~ 800만원 이하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이하	5
900만원 이상	13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의 전반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를 보면,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 = -.28, p < .01$), 통합자기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1, p < .01$). 그리고 분화자기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1, p < .01$). 이는 자기가 통합되어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많이 느끼고, 자기가 분화되어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적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조절변수인 집단주의 성향, 개인주의 성향과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감 간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성향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 = .29, p < .01$), 개인주의 성향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0, p < .01$). 이는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 크기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10정도는 작은 상관관계, .30정도는 보통 상관관계, .50이상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Cohen, 1988).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항목인 삶의 만족도, PA와 NA 간 보이는 높은 수준의 상관과 통합자기선택비율과 분화자기

선택 비율 간의 높은 상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작거나 보통 수준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 = 145$)

	1	2	3	4	5	6	7	8	9	10
1	1									
2	.86**	1								
3	.57**	.35**	1							
4	-.60**	-.40**	.19*	1						
5	.29**	.26**	.30**	-.02	1					
6	.20*	.09	.38**	.06	.08	1				
7	-.28**	-.27**	-.28**	.02	-.01	-.15	1			
8	-.12	-.10	-.14	.01	-.05	-.04	.48**	1		
9	.31**	.24**	.17*	-.24**	.25**	.18*	-.18*	.16*	1	
10	-.31**	-.24**	-.16	.24**	-.25**	-.18*	.17*	-.17*	-1.00*	1
<i>M</i>	-.01	4.16	2.95	2.66	4.60	4.67	2578.87	3440.02	.48	.52
<i>SD</i>	.68	1.17	.61	.74	.79	.68	950.68	1562.64	.17	.17

** : $p < .01$, * : $p < .05$ (양측)

(1: SWB, 2: 삶의 만족도, 3: PA, 4: NA, 5: 집단주의성향, 6: 개인주의성향, 7: 통합자기 반응시간, 8: 분화자기 반응시간, 9: 통합자기 선택비율, 10: 분화자기 선택비율)

3. 자기의 통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통합 및 분화 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문화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모델 절차에 따라 조절효과를 보았다. 1단계에 본인의 나이와 학력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 월평균 소득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 자기의 분화 및 통합 관련 변수를 예측변인으로, 문화성향 하위요인인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고, 3단계에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만들 때에는 중심화(Mean centering) 시킨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만들었다.

3-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beta = -.30, p < .01$)과 집단주의 성향($\beta = .24, p < .05$)이 각각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르고(높은 자기통합수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

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beta = -.25, p < .01$)과 집단주의 성향($\beta = .30, p < .01$)이 각각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르고(높은 자기통합수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부정 정서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beta = -.29, p < .01$)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를 수록(높은 자기통합수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beta = -.22, p < .01$)과 개인주의 성향($\beta = .30, p < .01$)이 각각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르고(높은 자기통합수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도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1, p < .05$)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개인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꼈으나($p < .01$), 개인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낮거나 높음에 따라(통합자기 반응시간이 느리거나 빠름에 따라) 긍정 정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11$).

3)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부정 정서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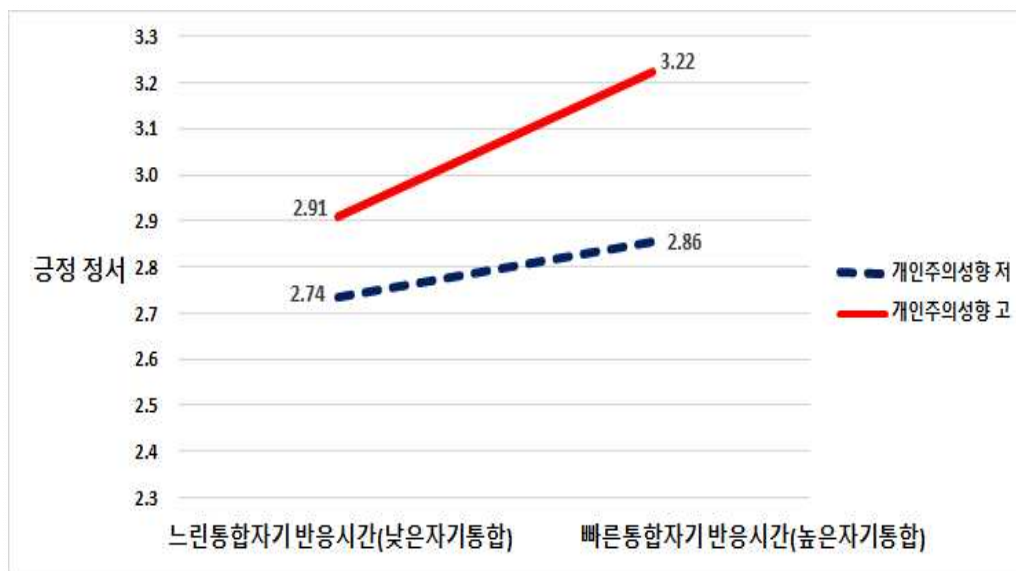


그림 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3-3.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통합자기 비율과 집단주의 성향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합자기 비율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통합자기 비율($\beta = .19, p < .05$)과 집단주의 성향($\beta = .25, p < .01$)이 각각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고(높은 자기통합수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도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3,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p = .06$)이든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p = .88$)이든 자기통합수준이 낮거나 높음에 따라(통합자기 비율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긍정 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통합자기 비율($\beta = -.19, p < .05$)이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을수록(높은 자기통합수준) 부정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자기 비율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도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5,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통합자기 비율이 높을수록) 부적 정서를 적게 느꼈으며($p > .001$),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통합자기 비율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부정 정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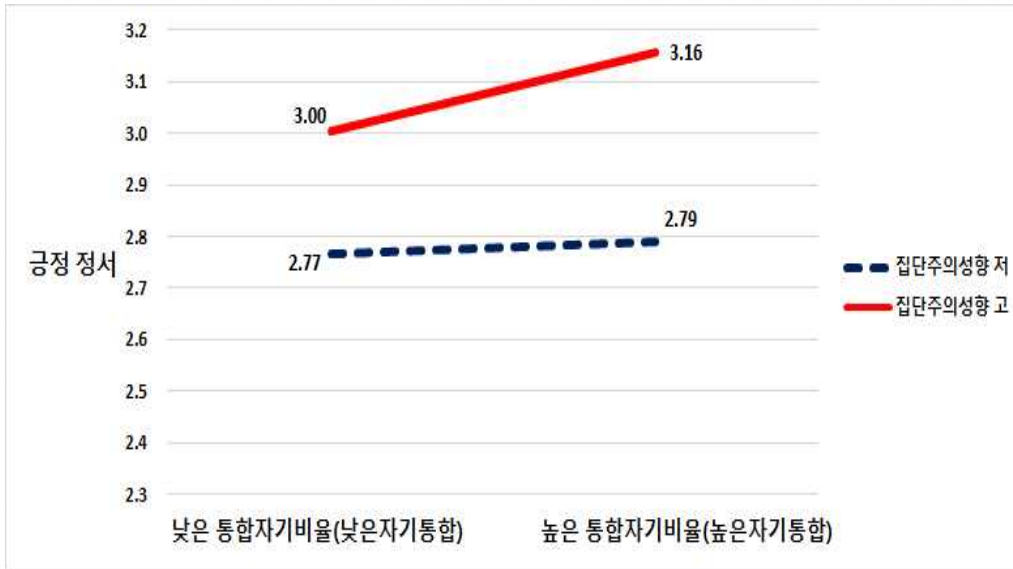


그림 3.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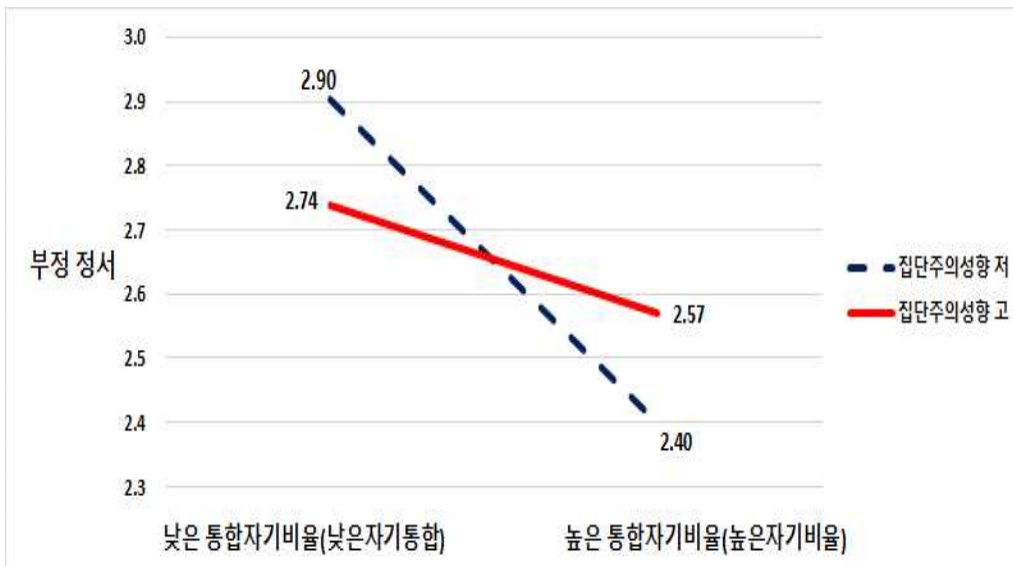


그림 4.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3-4. 통합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통합자기 비율($\beta = .23, p < .05$)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을 수록 (높은 자기통합수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통합자기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개인주의성향($\beta = .35, p < .001$)이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통합자기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통합자기 비율($\beta = -.24, p < .05$)이 부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자기 비율이 높을 수록(높은 자기통합수준) 부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의 조절효과

4-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집단주의 성향($\beta = .23, p < .05$)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집단주의 성향($\beta = .31, p < .001$)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부정 정서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개인주의 성향($\beta = .30, p < .01$)이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 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4와 같다.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부정 정서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분화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5와 같다.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분화자기 비율($\beta = -.19, p < .05$)과 집단주의 성향($\beta = .25, p < .01$)이 각각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화자기 비율이 낮고(높은 자기통합),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화자기 비율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도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3,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p = .08$)이든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p = .88$)이든 긍정 정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화자기 비율($\beta = .19, p < .05$)이 부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화자기 비율이 낮을수록(높은 자기통합) 부정 정서를 낮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화자기 비율과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도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 = -.25, p <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낮은 분화자기비율) 부정 정서를 적게 느꼈으나($p < .001$),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낮거나 높음에 따라(분화자기비율이 낮거나 높음에 따라) 부정 정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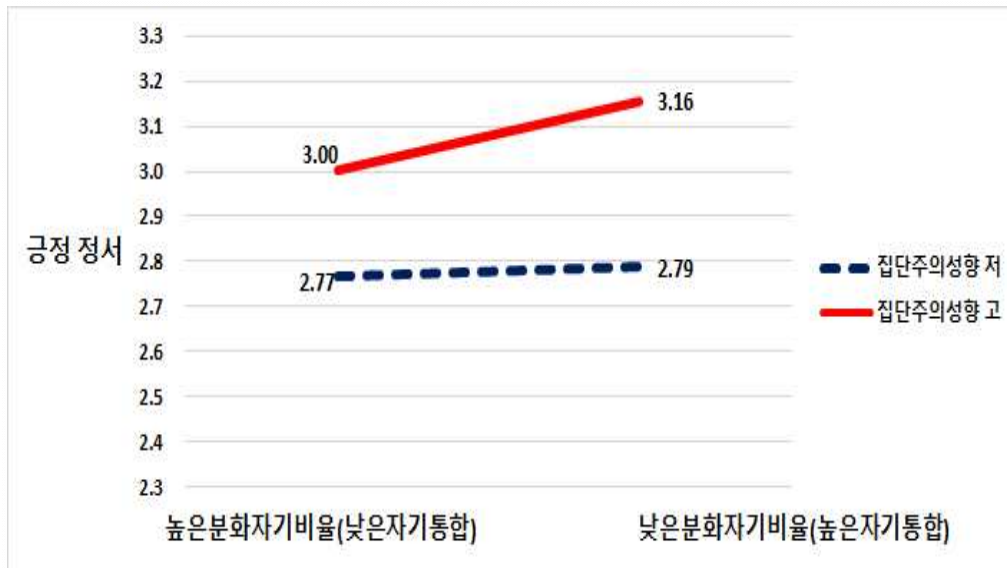


그림 5.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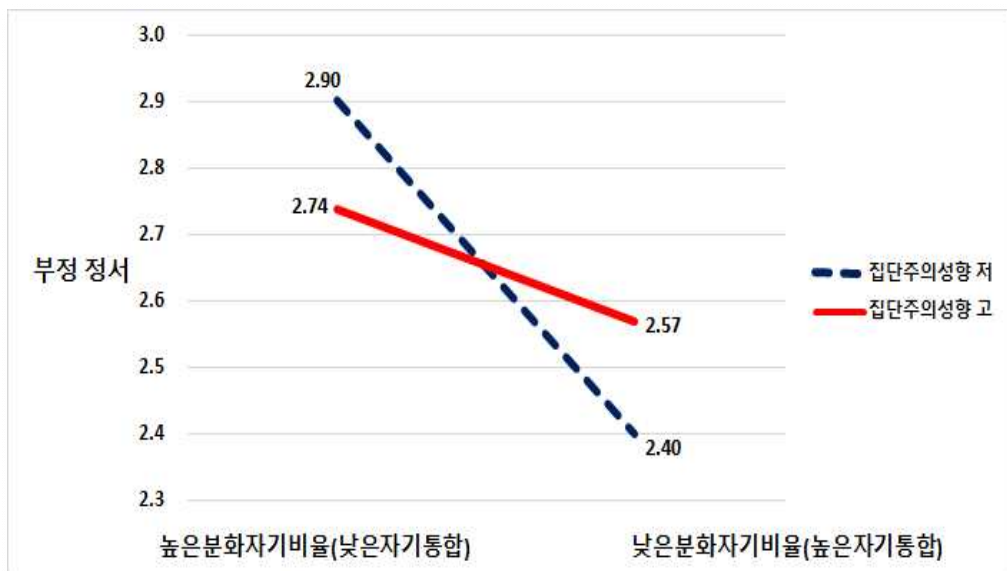


그림 6.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4-4. 분화자기 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1)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다. 분화자기 비율($\beta = -.23, p < .05$)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화자기 비율이 낮을수록(높은 자기통합수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다. 개인주의 성향($\beta = .35, p < .001$)이 긍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긍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다. 분화자기 비율($\beta = .25, p < .05$)이 부정 정서에 대해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화자기 비율이 낮을수록(높은 자

기통합수준) 부정 정서를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화자기 비율과 개인주의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부정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문화성향이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고, 통합자기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분화자기비율과 주관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며,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문제 1에 대한 가설 1-1(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분화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과 가설 1-2(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를 지지한다. 이는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완일, 김재환, 1992; 문정하, 2007; Campbell et al., 1996; Constantino et al., 2006; Monica et al., 2001).

둘째,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절효과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인 가설 2-1(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는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과 가설 2-2(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는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가 일부분에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 개인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기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많이 느꼈음이 확인되었다($p < .01$). 그리고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은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를 적게 느꼈음($p > .001$)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이 자기통합수준이 높을수록(낮은 분화자기비율) 부정 정서를 적게 느끼므로써($p < .001$),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절효과 가설과 일부 상반되는 결과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p = .058$)과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p = .884$) 모두 긍정 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확인되어 집단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높은 집단($p = .077$)이든 집단주의 성향 점수가 낮은 집단($p = .884$)이든 긍정 정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설과 상반된 두 개의 조절효과들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설과 일치되는 유의미한 결과들과 함께 존재하고 경계선상으로는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결과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영향을 개인의 문화성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기존의 연구들(고현석 등, 2012; 김옥란, 김완일, 2013; 김완일, 2003, 2008, 2012; 송보라, 이기학, 2009; 이기재, 최혜림, 2009)처럼 자기복잡성, 자기개념 명확성 등이 아닌, Triandis(1989)가 제안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Sedlovskaya 등(2013)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과 분화를 측정하여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간극이 클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사적 자기와 다른 공적 자기를 만드는 일이 자기제시(self-presentation)와 같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Vohs, Baumeister, & Ciarocco, 2005),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간극이 커지는 한 원인으로 사적 자기가 감춰야 할 자기의 진짜 정체성인 경우에 주목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수준을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로 측정하여 연구한 결과들은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Sedlovskaya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의 실험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분화와 통합 측정 과제에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수준을 반응시간과 반응빈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로 측정된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가 통합되어 있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아지고(Constantino et al., 2006),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Campbell et al., 2003; Donahue et al., 1993; Higgins, 1987; Higgins et al., 1986) 선행연구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가 관찰되어, 본 연구가 설정했던 자기의 통합이 심리적 건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참가자가 여자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학력 수준이 비슷하고 대개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남성 및 연령이 다른 집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본 연구모형이 재검증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가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더 클 것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길 원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후속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화성향의 조절효과의 가설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은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이었지만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Hofstede(1980)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성향을 개인차 변인으로 사용하기에 연구참가자들 간의 차이가 적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성향의 일관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 수를 더 확보하여 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문화성향을 Singelis 등(1995)의 문화성향 질문지로 측정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만 조절변수로 활용한 점이다. Triandis(1988)는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자들은 서로 사고방식과 행동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강조하고,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여 위계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는 자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만,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구별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정의하였다.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는 집단 안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자신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자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는 상호간에 서로 동등한 관계로 여기고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여 상호의존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Triandis 1998). 이렇듯 수직적-수평적 차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네 가지 문화성향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수직적-수평적 요소로 확장한 세분화된 개인 문화성향 측정으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Singelis 등(1995)의 질문지

를 이용한 측정 이외에도 특정 상황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하는 개인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의 문화성향을 파악하는 방법(한규석, 신수진 1999) 등을 활용해 문화성향의 측정을 다각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의 안녕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 중에는 일상 생활 경험에는 개인적 성취나 가족과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경험이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좋게 유지할수록 행복을 느끼고, 관계에 갈등이 생길수록 불행하며(구재선, 김의철, 2006), 사회적 관계가 한국인의 삶의 질을 인식하는데 중요하고(박영신, 김의철, 2006), 긍정적 대인관계가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적 강한 상관을 보였다(차경호, 2004)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교우 관계 등 역시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riandis(1989)가 제안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자기복잡성, 자기개념 명확성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기의 통합 및 분화를 측정해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을 때 자기의 통합이 심리적 건강에 더 적응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측정과제를 이용해 측정된 자기의 통합 및 분화 정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825-846.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 77-100.
- 구재선,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43-166.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 279-300.
- 김경민, 박동건(2011).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 395-413.
- 김옥란, 김완일(2013). 군 병사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25, 699-722.
- 김완일(2008). 자기개념의 분화와 통합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상담학연구**, 9, 1043-1061.
- 김완일, 김재환 (1992). 대학생의 자기 긍정감, 자기 복잡성 및 우울 성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생활연구**, 10, 249-270.
- 김정덕, 모경환(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정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 193-226.
-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 61-70.
- 나미화(2007).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대상관계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뉴스시스 (2015.01.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6307&cID=10301&pID=10300
- 류지현(2010). PDA의 화면설계 방식 및 과제유형이 반응시간과 사용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 71-94.

- 문정하(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경혜(2004).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선영(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 71-92.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61-195.
- 박혜경(2011). 허위 독특성 편향의 문화차: 문화와 자기고양에 대한 재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27-142.
- 우영지, 이기학(2011). 여대생의 문화성향 군집에 따른 다중역할계획태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 405-425.
- 육근영, 방희정, 옥정(2006).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아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 47-65.
- 이상순 (2012). 신경증적 경향성, 투사 및 지각된 부부갈등 간 관계: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재식(2013). 위험 운전상황에서 운전자의 문화성향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 운전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 367-388.
- 이재신, 이지혜 (2011). 교사의 자율성, 낙관성, 교수몰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8, 66-90.
- 장수지, 김수영, Kobayashi, E. (2014).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1-24.
- 조금호, 김소연(1998). 결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169-189.
- 조금호, 김은진(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39-165.
- 조금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15-34.
- 조금호, 이재영(2007).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05-126.
- 조은영, 임성문(2012).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간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493-519.
- 중부매일 (2015.01.28).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270>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 321-337.
- 차재호, 정지원(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 150-163.
- 최정원, 이영호(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 69-87.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보연, 박예지, 배경란, 임동선(2014). 이중언어사용자의 표음문자 및 표의문자 반응시간 차이. **특수교육**, 13, 111-125.
- 한성열, 안창일(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 116-128.
- 허재홍, 진현정 (2008). 문화성향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 1475-1487.
- 허현정(200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열등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홍승범, 박혜경(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125-150.
- Beck, A. T., Steer, R. A., Epstein, N., & Brown, G. (1990). Beck self-concept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2, 191-197.
- Benet-Martínez, V., Leu, J., Lee, F., & Morris, M. W. (2002). Negotiating biculturalism: Cultural frame switching in biculturals with oppositional versus compatible cultural ident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92-516.
- Brady, E. U., & Kendall, P. C. (1992).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1,

244-25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3-549.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1467-6494.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natantino, M, J., Wilson, K, R., & Horowitz, L, M. (2006). The direct and stress-buffering effects of self-organiz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333-360.
- Constantino, M. J., Wilson, K. R., Horowitz, L. M., & Pinel, E. C. (2006).

- The direct and stress - buffering effects of self - organiz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333-360.
- Cross, S. E., Gore, J. S., & Morris, M. L. (2003).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33-944.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D.,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xon, T. M. & Baumeis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4-12.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 404-416.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Fromm, E. (2000).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ing] (황문수 역). 서울 : 문예출판 사. (원전은 1956년에 출판)
- Fu, J. H., Morris, M. W., Lee, S., Chao, M., Chiu, C., & Hong, Y. (2007). Epistemic motives and cultural conformity: need for closure, culture, and context as determinants of conflict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91-207.
- Heine, S. (2001). Self as cultural product: An examination of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69, 881-906.
- Hershberge, P. (1990). Self-complexity and health promotion: Promising but premature. *Psychological Reports*, 66, 1207-1216.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theory: A theory relation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ui, C. H., & Triandis, H. C. (1985).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Iwao, S., & Triandis, H. C. (1993). Validity of auto- and heterostereotyp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428-444.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1-49). Boston, MA: Allyn & Bacon.
- Kawahito, J., Hori, M., & Otsuka, Y. (2010). Effects of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complexity o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178-193.
- Kitayama, S., & Markus, H. R. (1998). Yin and yang of the Japanese self: The cultural psychology of personality coherence. In D. Cervone & Y. Shoda (Eds.), *The coherence of personality: Social cognitive bases of personality consistency, variability, and organization* (pp. 242 - 302). New York: Guilford Press.
- Lecky, P. (1945).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Island.
- Lee, D. Y., Park, S. H., & Uhlemann, M. R. (2002). Self and other ratings of Canadian and Korean group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their clients. *Psychological Reports, 90*, 667-676.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adsona, L., & Trafimowa, D. (2001). Gender comparisons in the private, collective, and allocentric selv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551-559.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sh, H. W., Relich,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tens, W. H. (2009). The role of self-complexity in reducing harmful insight among persons with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3, 89-102.
- Matsumoto, D., & Juang, L. (2013). *문화와 심리학 제5판* [Culture and psychology 5th edition]. (신현정, 이재식, 김비아 역). 서울: 박학사. (원전은 1995에 출판)
- McConnell, A. R., Renaud, J. M., Deab, K. K., Green, S. P., Lamoreaux, M. J., Hall, C. E., & Rydell, R. J. (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1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ishi, S., Diener, E. (2001). Goal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674-1682.
- Rafaeli-Mor, E., & Steinberg, J. (2002).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31-58.
- Renaud, J. M., & McConnell, A. R. (2002). Organization of the self-concept and the suppression of self relevant though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79-86.
- Sedlovskaya, A., Purdie-Vaughns, V., Eibach, R. P., LaFrance, M., Romero-Canyas, R., & Camp, N. P. (2013). Internalizing the closet: Concealment heightens the cognitiv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695-715.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5*, 5-14.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 216-217.
- Showers, C. (1992).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36-1049.
- Srivastava, A., Locke, E. A., & Bartol, K. M. (2001). Money and Subjective Well-Being: It's Not the Money, It's th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59-971.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 - 1391.
- Strauman, T. J., & Higgins, E. T. (1987). Automatic activation of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syndromes: When cognitive structures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04-1014.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41-51). Thousand Oaks, CA: Sag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 - 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P., Touzard, H., & Zale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 Wylie, R. C. (1961). *The Self-concept: A critical survey of pertinent
research literatur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ABSTRACT

The effects of Self-Integration, Self-Differenti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 The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Orientation

JungE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effect self-integration/differentia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was observed and verified if that relationship was controlled by one's cultural orien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8 females over the age of 18. I wanted to measure their self-integr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as the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eir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in which we proceeded the study using a computer program, conducting a survey using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and a cultural orientation scale. The result confirmed people with higher self-integration level had a higher satisfaction in life and felt a lot of positive affects and people with lower self-integration level felt a lot of negative affects. Also the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on effect of cultural orientation confirm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ion

self reaction time and positive affect,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tic tendencies was meaningful.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groups with a high level of individualistic tendency had more positive affect when the level of their self-integration was higher.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ed self ratio and negative affect, it was proven that the moderation affect of collectivism tendencies was meaningful as well an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groups with low collectivism tendency level felt less negative affects when their self-integration level was higher. To synthesize,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orts the existing theory that the degree of one's cultural orientation can control the effect their integration level has with their subjective well-being.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Self-Concept Differentiation, Self-concept Integration,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Orientation

부 록

표 7.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 ²	조정된 R ²	ΔR^2	F
모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 학력	.10	.22	.05	.44					
	부친 학력	.02	.13	.02	.14					
	모친 학력	-.06	.12	-.05	-.45					
	부모 직업	.02	.11	.02	.2					
	소득	.05	.05	.09	.96					
모형 2	나이	.01	.06	.02	0.25	.15	.08	.13	2.32*	
	본인 학력	-.04	.21	-.02	-.21					
	부친 학력	-.04	.12	-.04	-.36					
	모친 학력	<-.01	.12	<-.01	-.02					
	부모 직업	.02	.10	.02	.18					
	소득	.03	.04	.06	.69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01	<.01	-.29	-3.23**					
	.32	.13	.23	2.54*						
모형 3	나이	.01	.06	.02	.25	.15	.08	<.01	2.09*	
	본인 학력	-.04	.21	-.02	-.18					
	부친 학력	-.04	.12	-.04	-.35					
	모친 학력	<-.01	.12	<-.01	-.04					
	부모 직업	.02	.10	.02	.20					
	소득	.03	.05	.06	.70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01	<.01	-.30	-3.28**					
		.34	.13	.24	2.59*					
	<.01	<.01	.05	.60						

*** $p < .001$, ** $p < .01$, * $p < .05$

표 8.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 ²	조정된 R ²	ΔR^2	F
모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모형 2	나이	<-.01	.03	<-.01	-.04	.24	.18	.15	4.26***	
	본인학력	.06	.10	.05	.55					
	부친학력	.14	.06	.24	2.35*					
	모친학력	-.09	.06	-.17	-1.58					
	부모직업	<.01	.05	.01	.08					
	소득	.02	.02	.06	.74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01	<.01	-.26	-3.02**					
	.22	.06	.30	3.56**						
모형 3	나이	<-.01	.03	<-.01	-.04	.24	.18	<.01	3.76***	
	본인학력	.06	.10	.05	.53					
	부친학력	.14	.06	.24	2.33*					
	모친학력	-.09	.06	-.16	-1.56					
	부모직업	<.01	.05	.01	.07					
	소득	.02	.02	.06	.74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01	<.01	-.25	-2.90**					
		.22	.06	.30	3.47**					

*** $p < .001$, ** $p < .01$, * $p < .05$

표 9.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 ²	조정된 R ²	ΔR^2	F
모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형 2	나이	-.02	.04	-.05	-.48	.06	<.01	9.89	.93
	본인학력	-.02	.14	-.01	-.12				
	부친학력	.12	.08	.17	1.49				
	모친학력	<-.01	.08	-.01	-.06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18*				
	통합자기 반응시간(A)	2.33	7.07	.03	.33				
집단주의 성향(B)	.01	.09	.01	.09					
모형 3	나이	-.02	.04	-.05	-.49	.08	<.01	.02	1.03
	본인학력	-.03	.14	-.02	-.19				
	부친학력	.12	.08	.17	1.49				
	모친학력	<-.01	.08	<-.01	-.02				
	부모직업	.01	.07	.01	.14				
	소득	-.07	.03	-.21	-2.21*				
	통합자기 반응시간(A)	4.06	7.16	.05	.57				
	집단주의 성향(B)	-.01	.09	<-.01	-.10				
상호작용 (A*B)	-1.46	1.07	-.13	-1.36					

*** $p < .001$, ** $p < .01$, * $p < .05$

표 10.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 ²	조 정 된R ²	ΔR^2	F
모 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 형 2	나이	-.01	.06	-.01	-.13	.10	.03	.09	1.47
	본인학력	.02	.22	.01	.08				
	부친학력	-.04	.12	-.04	-.33				
	모친학력	-8.03	.12	-7.61	-.01				
	부모직업	.02	.11	.02	.18				
	소득	.04	.05	.07	.80				
	통합자기 반응시간(A)	-3.28	1.09	-.29	-3.02**				
	집단주의 성향(B)	.08	.15	.05	.55				
모 형 3	나이	-.01	.06	-.01	-.10	.10	.02	7.80	1.31
	본인학력	.01	.22	.01	.07				
	부친학력	-.04	.12	-.04	-.32				
	모친학력	<-.01	.12	<-.01	-.03				
	부모직업	.02	.11	.02	.18				
	소득	.04	.05	.08	.80				
	통합자기 반응시간(A)	-3.32	1.10	-.29	-3.03**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08 -5.33	.16 1.74	.05 -.03	.48 -.31				

*** $p < .001$, ** $p < .01$, * $p < .05$

표 11.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 ²	조 정 된R ²	ΔR^2	F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모 형 2	나이	-.02	.03	-.06	-.68	.26	.20	.17	4.77***
	본인학력	.13	.10	.12	1.28				
	부친학력	.13	.06	.23	2.26*				
	모친학력	-.09	.06	-.17	-1.66				
	부모직업	.01	.05	.01	.17				
	소득	.02	.02	.07	.82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1.20	5.09	-.20	-2.35*				
모 형 3	나이	-.01	.03	-.04	-.48	.30	.24	.04	5.20***
	본인학력	.12	.10	.11	1.24				
	부친학력	.14	.06	.24	2.43*				
	모친학력	-.10	.06	-.19	-1.86				
	부모직업	.01	.05	.02	.22				
	소득	.02	.02	.07	.90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1.33	4.99	-.22	-2.66**				
		.26	.07	.30	3.55**				
		-2.05	7.94	-.21	-2.58*				

*** $p < .001$, ** $p < .01$, * $p < .05$

표 12. 통합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조			
변수		B	S.E	β	t	R ²	정 된R ²	ΔR^2	F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2	.04	-.06	-.54	.08	.01	.01	1.11	
	본인학력	2.57	.14	1.84	<.01					
	부친학력	.12	.08	.16	1.45					
	모친학력	-.01	.08	-.01	-.09					
	부모직업	.02	.07	.02	.22					
	소득	-.07	.03	-.21	-2.24*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3.76	7.14	.05	.53					
모 형 3	나이	-.02	.04	-.04	-.42	.09	.02	.02	1.24	
	본인학력	-.01	.14	<-.01	-.04					
	부친학력	.12	.08	.17	1.52					
	모친학력	-.01	.08	-.02	-.18					
	부모직업	.02	.07	.02	.24					
	소득	-.07	.03	-.21	-2.21*					
	통합자기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2.67	7.14	.04	.37					
		.09	.10	.08	.86					
		-1.68	1.13	-.14	-1.48					

*** $p < .001$, ** $p < .01$, * $p < .05$

표 13.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정된 <i>R</i> ²	ΔR^2	<i>F</i>
모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형 2	나이	-.02	.06	-.03	-.29	.10	.04	.09	1.57
	본인학력	.07	.22	.03	.31				
	부친학력	.05	.12	.04	.40				
	모친학력	-.08	.12	-.08	-.69				
	부모직업	.01	.11	.01	.09				
	소득	.05	.05	.10	1.10				
	통합자기	1.47	.67	.21	2.20*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25	.14	.17	1.81					
모형 3	나이	-.01	.06	-.02	-.17	.13	.06	.03	1.80
	본인학력	.05	.21	.02	.23				
	부친학력	.05	.12	.05	.42				
	모친학력	-.09	.12	-.09	-.79				
	부모직업	.01	.11	.01	.10				
	소득	.05	.05	.10	1.10				
	통합자기	1.29	.67	.19	1.93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26	.13	.18	1.90				
	상호작용 (A*B)	-1.41	.77	-.17	-1.83				

****p*<.001, ***p*<.01, **p*<.05

표 14.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모 형 2	나이	-.01	.66	-.05	-.48	.20	.14	.11	3.32**
	본인학력	.11	.11	.10	1.01				
	부친학력	.18	.06	.31	2.94**				
	모친학력	-.12	.06	-.23	-2.14*				
	부모직업	8.49	.05	<.01	.02				
	소득	.02	.02	.10	1.08				
	통합자기	.57	.33	.16	1.72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19	.07	.26	2.89**					
모 형 3	나이	-.02	.03	-.06	-.67	.25	.19	.05	3.96***
	본인학력	.12	.10	.11	1.16				
	부친학력	.17	.06	.31	3.00**				
	모친학력	-.12	.06	-.21	-2.06*				
	부모직업	8.64	.05	<.01	.02				
	소득	.03	.02	.10	1.13				
	통합자기	.69	.32	.19	2.15*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19	.06	.25	2.87**				
1.01	.37	.23	2.73**						

****p*<.001, ***p*<.01, **p*<.05

표 15.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1	.04	-.01	-.08	.11	.04	.05	1.66
	본인학력	-.04	.14	-.03	-.26				
	부친학력	.09	.08	.13	1.16				
	모친학력	.02	.08	.02	.21				
	부모직업	.02	.07	.03	.32				
	소득	-.08	.03	-.24	-2.52*				
	통합자기	-1.03	.43	-.23	-2.37*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06	.09	.07	.73				
모 형 3	나이	-.01	.04	-.03	-.27	.17	.10	.06	2.41*
	본인학력	-.02	.14	-.01	-.14				
	부친학력	.09	.08	.13	1.17				
	모친학력	.03	.07	.04	.35				
	부모직업	.02	.07	.03	.33				
	소득	-.08	.03	-.23	-2.58*				
	통합자기	-.86	.43	-.19	-2.01*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06	.09	.06	.65				
	상호작용 (A*B)	1.35	.49	.25	2.76**				

****p*<.001, ***p*<.01, **p*<.05

표 16. 통합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정된 <i>R</i> ²	ΔR^2	<i>F</i>
모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형 2	나이	-.04	.06	-.06	-.62	.08	.01	.07	1.18
	본인학력	.12	.22	.05	.53				
	부친학력	.05	.12	.05	.43				
	모친학력	-.08	.12	-.08	-.70				
	부모직업	.01	.11	.01	.08				
	소득	.06	.05	.11	1.21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1.73	.66	.25	2.62*				
모형 3	나이	-.03	.06	-.06	-.59	.10	.02	.02	1.31
	본인학력	.11	.22	.05	.51				
	부친학력	.04	.12	.03	.31				
	모친학력	-.08	.12	-.07	-.63				
	부모직업	.01	.11	.01	.08				
	소득	.06	.05	.12	1.31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1.57	.67	.23	2.35*				
		.10	.16	.06	.66				
	1.31	.86	.14	1.52					

*** $p < .001$, ** $p < .01$, * $p < .05$

표 17. 통합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0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모 형 2	나이	-.03	.03	-.10	-1.04	.25	.19	.16	4.51***	
	본인학력	.17	.10	.15	1.64					
	부친학력	.16	.06	.29	2.83**					
	모친학력	-.12	.06	-.23	-2.19*					
	부모직업	<.01	.05	.01	.09					
	소득	.02	.02	.10	1.13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61	.31	.17	1.97					
	.30	.07	.35	4.07***						
모 형 3	나이	-.03	.03	-.10	-1.02	.26	.20	.01	4.21***	
	본인학력	.17	.10	.15	1.62					
	부친학력	.16	.06	.28	2.72**					
	모친학력	-.12	.06	-.22	-2.13*					
	부모직업	<.01	.05	<.01	.10					
	소득	.03	.02	.10	1.21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55	.31	.15	1.74					
	.30	.07	.35	4.11***						
	.52	.40	.11	1.28						

****p*<.001, ***p*<.01, **p*<.05

표 18. 통합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1	.04	-.02	-.22	.12	.06	.06	1.91
	본인학력	-.01	.14	-.01	-.08				
	부친학력	.08	.08	.12	1.07				
	모친학력	.02	.08	.02	.22				
	부모직업	.02	.07	.03	.36				
	소득	-.08	.03	-.24	-2.58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1.05	.42	-.23	-2.50				
모 형 3	나이	-.01	.04	-.02	-.21	.13	.06	<.01	1.76
	본인학력	-.01	.14	-.01	-.09				
	부친학력	.08	.08	.11	1.00				
	모친학력	.02	.08	.03	.26				
	부모직업	.03	.07	.03	.37				
	소득	-.08	.03	-.23	-2.52*				
	통합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1.10	.43	-.24	-2.59*				
		.43	.55	.07	.78				

****p*<.001, ***p*<.01, **p*<.05

표 19.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정된 <i>R</i> ²	ΔR^2	<i>F</i>
모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형 2	나이	<.01	.06	.01	.08	.07	<-.01	.05	.95
	본인학력	.03	.22	.01	.13				
	부친학력	7.49	.13	6.81	.01				
	모친학력	-.06	.12	-.05	-.47				
	부모직업	.03	.11	.02	.26				
	소득	.04	.05	.08	.79				
	분화자기	-4.30	9.03	-.05	-.45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33	.13	.23	2.44*				
모형 3	나이	.01	.06	.01	.12	.07	-.01	7.68	.85
	본인학력	.02	.23	.01	.10				
	부친학력	-2.56	.13	-2.33	<-.01				
	모친학력	-.06	.12	-.05	-.47				
	부모직업	.03	.11	.03	.29				
	소득	.04	.05	.07	.77				
	분화자기	-4.43	9.08	-.05	-.49				
	반응시간(A) 집단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32	.13	.23	2.39*				
	-3.62	1.21	-.03	-.30					

****p*<.001, ***p*<.01, **p*<.05

표 20.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정된 <i>R</i> ²	ΔR^2	<i>F</i>
		나이	-.02	.03	-.07	-.66				
모형 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08	.03	.08	1.71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나이	<-.01	.03	-.02	2.81				
모형 2	본인학력	.06	.11	.06	.59					
	부친학력	.14	.06	.24	2.30*					
	모친학력	-.11	.06	-.21	-1.94					
	부모직업	.01	.05	.02	.27					
	소득	.02	.02	.06	.73	.20	.15	.12	3.48**	
	분화자기	-8.64	4.32	-.18	-2.00*					
	반응시간(A)									
	집단주의	.22	.06	.30	3.44**					
	성향(B)									
		나이	-.01	.03	-.04	-.42				
모형 3	본인학력	.09	.11	.08	.80					
	부친학력	.14	.06	.25	2.37*					
	모친학력	-.11	.06	-.20	-1.91					
	부모직업	<.01	.05	.01	.08					
	소득	.02	.02	.07	.85					
	분화자기	-8.24	4.28	-.17	-1.93	.23	.16	.02	3.54**	
	반응시간(A)									
	집단주의	.23	.06	.31	3.63***					
	성향(B)									
	상호작용 (A*B)	1.05	5.72	.16	1.84					

****p*<.001, ***p*<.01, **p*<.05

표 21.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2	.04	-.05	-.46	.06	<-. 01	<.0 1	0.93
	본인학력	-.03	.15	-.02	-.23				
	부친학력	.11	.08	.16	1.35				
	모친학력	1.18	.08	1.73	<.01				
	부모직업	.01	.07	.02	.21				
	소득	-.07	.03	-.21	-2.23*				
	분화자기 반응시간(A)	-2.30	5.87	-.04	-.39				
	집단주의 성향(B)	.01	.09	.01	.07				
모 형 3	나이	-.02	.04	-.05	-.48	.06	-.01	3.20	.83
	본인학력	-.03	.15	-.02	-.21				
	부친학력	.11	.08	.16	1.35				
	모친학력	4.79	.08	6.98	.01				
	부모직업	.01	.07	.02	.19				
	소득	-.07	.03	-.21	.19*				
	분화자기 반응시간(A)	-2.25	5.90	-.04	-.38				
	집단주의 성향(B)	.01	.09	.01	.09				
상호작용 (A*B)	1.52	7.89	.02	.19					

****p*<.001, ***p*<.01, **p*<.05

표 22.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 형 2	나이	-.02	.06	-.03	-.29	.02	-.05	.01	.33	
	본인학력	.10	.23	.05	.43					
	부친학력	<-.01	.13	<-.01	-.02					
	모친학력	-.05	.12	-.05	-.43					
	부모직업	.03	.11	.03	.26					
	소득	.04	.05	.08	.87					
	분화자기 반응시간(A)	-4.22	9.26	-.05	-.46					
	개인주의 성향(B)	.16	.16	.10	1.01					
모 형 3	나이	-.02	.06	-.04	-.39	.03	-.05	.01	.38	
	본인학력	.10	.23	.05	.44					
	부친학력	<-.01	.13	<-.01	-.06					
	모친학력	-.04	.12	-.04	-.34					
	부모직업	.02	.11	.02	.19					
	소득	.04	.05	.08	.85					
	분화자기 반응시간(A)	-3.51	9.31	-.04	-.38					
	개인주의 성향(B)	.18	.16	.11	1.14					
	상호작용 (A*B)	1.18	1.34	.09	.88					

****p*<.001, ***p*<.01, **p*<.05

표 23.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0.10	1.03					
모 형 2	나이	-.02	.03	-.07	-.77	.24	.19	.16	4.40***
	본인학력	.13	.10	.12	1.28				
	부친학력	.13	.06	.22	2.18*				
	모친학력	-.11	.06	-.20	-1.95				
	부모직업	.02	.05	.03	.35				
	소득	.02	.02	.07	.78				
	분화자기 반응시간(A) 개인주의 성향(B)	-7.60	4.22	-.16	-1.80				
	.31	.07	.36	4.28***					
모 형 3	나이	-.02	.03	-.063	-.68	.25	.18	<.0 1	3.95***
	본인학력	.13	.10	.12	1.27				
	부친학력	.13	.06	.23	2.20*				
	모친학력	-.11	.06	-.21	-2.01*				
	부모직업	.02	.05	.03	.40				
	소득	.02	.02	.07	.79				
	분화자기 반응시간(A) 개인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7.84	4.25	-.16	-1.85				
	.30	.07	.35	4.10***					
	-4.07	6.10	-.06	-.67					

****p*<.001, ***p*<.01, **p*<.05

표 24. 분화자기 반응시간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76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7.37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2	.04	-.05	-.50	.07	<.0 1	.01	1.08
	본인학력	-.02	.14	-.01	-.13				
	부친학력	.11	.08	.15	1.31				
	모친학력	4.76	.08	6.95	6.09				
	부모직업	0.016	0.07	0.021	0.228				
	소득	-.07	.03	-.22	-2.28*				
	분화자기 반응시간(A)	-1.79	5.86	-.03	-.31				
	개인주의 성향(B)	.11	.10	.10	1.06				
모 형 3	나이	-.01	.04	-.04	-.39	.08	<.0 1	.01	1.04
	본인학력	-.02	.14	-.02	-.15				
	부친학력	.11	.08	.15	1.34				
	모친학력	-.01	.08	-.01	-.09				
	부모직업	.02	.07	.03	.30				
	소득	-.07	.03	-.21	-2.26*				
	분화자기 반응시간(A)	-2.23	5.89	-.04	-.38				
	개인주의 성향(B)	.09	.10	.09	.90				
	상호작용 (A*B)	-7.24	8.45	-.08	-.86				

****p*<.001, ***p*<.01, **p*<.05

표 25.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정된 <i>R</i> ²	ΔR^2	<i>F</i>
모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형 2	나이	-.02	.06	-.03	-.31	.10	.04	.09	1.58
	본인학력	.07	.22	.03	.32				
	부친학력	.05	.12	.05	.42				
	모친학력	-.08	.12	-.08	-.69				
	부모직업	.01	.11	.01	.11				
	소득	.05	.05	.10	1.11				
	분화자기 비율(A)	-1.49	.67	-.21	-2.22*				
	집단주의 성향(B)	.25	.14	.17	1.80				
모형 3	나이	-.01	.06	-.02	-.19	.13	.06	.03	1.81
	본인학력	.05	.21	.02	.24				
	부친학력	.05	.12	.05	.44				
	모친학력	-.09	.12	-.09	-.79				
	부모직업	.01	.11	.01	.11				
	소득	.05	.05	.10	1.11				
	분화자기 비율(A)	-1.31	.67	-.19	-1.95				
	집단주의 성향(B)	.25	.13	0.18	1.88				
상호작용 (A*B)	1.40	.77	.17	1.82					

****p*<.001, ***p*<.01, **p*<.05

표 26.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				
모 형 2	나이	-.01	.03	-.05	-.48	.19	.13	.11	3.28**
	본인학력	.11	.11	.10	1.01				
	부친학력	.18	.06	.31	2.94**				
	모친학력	-.12	.06	-.23	-2.13*				
	부모직업	<.01	.05	<.01	.03				
	소득	.02	.02	.10	1.07				
	분화자기 비율(A) 집단주의 성향(B)	-.54 .19	.33 .07	-.15 .26	-1.63 2.90**				
모 형 3	나이	-.02	.03	-.06	-.68	.25	.18	.05	3.91***
	본인학력	.12	.10	.11	1.17				
	부친학력	.17	.06	.31	3.00**				
	모친학력	-.12	.06	-.21	-2.05*				
	부모직업	<.01	.05	<.01	.04				
	소득	.02	.02	.10	1.12				
	분화자기 비율(A) 집단주의 성향(B)	-.67 .19	.32 .07	-.19 .25	-2.06* 2.89**				
	상호작용 (A*B)	-1.01	.37	-.23	-2.72**				

****p*<.001, ***p*<.01, **p*<.05

표 27.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01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1	.04	-.01	-.06	.11	.04	.05	1.68
	본인학력	-.04	.14	-.03	-.28				
	부친학력	.09	.08	.13	1.14				
	모친학력	.02	.08	.02	.21				
	부모직업	.02	.07	.03	.31				
	소득	-.08	.03	-.24	-2.53*				
	분화자기 비율(A) 집단주의 성향(B)	1.04	.43	.23	2.40*				
모 형 3	나이	-.01	.04	-.03	-.25	.17	.10	.06	2.42*
	본인학력	-.02	.14	-.01	-.15				
	부친학력	.09	.08	.12	1.15				
	모친학력	.03	.07	.04	.35				
	부모직업	.02	.07	.03	.32				
	소득	-.08	.03	-.23	-2.59*				
	분화자기 비율(A) 집단주의 성향(B)	.87	.42	.19	2.04*				
	상호작용 (A*B)	.06	.09	.06	.67				
		-1.34	.49	-.25	-2.75**				

****p*<.001, ***p*<.01, **p*<.05

표 28. 분화자기 비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6	-.03	-.28	.01	-.04	.01	.22
	본인학력	.10	.22	.056	.44				
	부친학력	.02	.13	.02	.14				
	모친학력	-.06	.12	-.05	-.45				
	부모직업	.02	.11	.02	.20				
	소득	.05	.05	.09	.96				
모 형 2	나이	-.04	.06	-.07	-.64	.08	.01	.07	1.19
	본인학력	.12	.22	.06	.55				
	부친학력	.06	.12	.05	.46				
	모친학력	-.08	.12	-.08	-.70				
	부모직업	.01	.11	.01	.09				
	소득	.06	.05	.11	1.21				
	분화자기 비율(A)	-1.75	.66	-.25	-2.64**				
	개인주의 성향(B)	.10	.16	.06	.62				
모 형 3	나이	-.04	.06	-.06	-.62	.10	.02	.02	1.33
	본인학력	.11	.22	.05	.52				
	부친학력	.04	.12	.04	.33				
	모친학력	-.08	.12	-.07	-.63				
	부모직업	.01	.11	.01	.10				
	소득	.06	.05	.12	1.31				
	분화자기 비율(A)	-1.58	.67	-.23	-2.38*				
	개인주의 성향(B)	.10	.16	.06	.66				
	상호작용 (A*B)	-1.30	.86	-.14	-1.52				

****p*<.001, ***p*<.01, **p*<.05

표 29. 분화자기 비율과 긍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3	-.07	-.66	.08	.03	.08	1.71				
	본인학력	.13	.11	.12	1.20								
	부친학력	.17	.06	.29	2.64**								
	모친학력	-.11	.06	-.21	-1.84								
	부모직업	.01	.06	.01	.09								
	소득	.02	.02	.10	1.03								
모 형 2	나이	-.03	.03	-.97	-1.05	.25	.19	.16	4.46***				
	본인학력	.17	.10	.15	1.65								
	부친학력	.16	.06	.29	2.83**								
	모친학력	-.12	.06	-.23	-2.18*								
	부모직업	.01	.05	.01	.11								
	소득	.02	.02	.10	1.12								
	분화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58	.31	-.16	-1.89					.30	.07	.35	4.07***
모 형 3	나이	-.03	.03	-.10	-1.03	.26	.20	.01	4.17***				
	본인학력	.17	.10	.15	1.63								
	부친학력	.16	.06	.28	2.72**								
	모친학력	-.12	.06	-.22	-2.12*								
	부모직업	.01	.05	.01	.11								
	소득	.03	.02	.10	1.20								
	분화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52	.31	-.14	-1.66					.30	.07	.35	4.12***
	상호작용 (A*B)	-.52	.40	-.11	-1.29								

****p*<.001, ***p*<.01, **p*<.05

표 30. 분화자기 비율과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조 정 된 <i>R</i> ²	ΔR^2	<i>F</i>
모 형 1	나이	-.02	.04	-.05	-.49	.06	.01	.06	1.24	
	본인학력	-.02	.14	-.02	-.16					
	부친학력	.12	.08	.16	1.47					
	모친학력	<-.01	.08	<-.01	-.01					
	부모직업	.01	.07	.02	.18					
	소득	-.07	.03	-.21	-2.22*					
모 형 2	나이	-.01	.04	-.02	-.19	.12	.06	.06	1.93	
	본인학력	-.01	.14	-.01	-.09					
	부친학력	.08	.08	.12	1.05					
	모친학력	.02	.08	.03	.23					
	부모직업	.02	.07	.03	.35					
	소득	-.08	.03	-.24	-2.59*					
	분화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1.06	.42	.24	2.53*					
모 형 3	나이	-.01	.04	-.02	-.18	.13	.06	<.0 1	1.78	
	본인학력	-.02	.14	-.01	-.11					
	부친학력	.08	.08	.11	.98					
	모친학력	.02	.08	.03	.26					
	부모직업	.02	.07	.03	.35					
	소득	-.08	.03	-.23	-2.53*					
	분화자기 비율(A) 개인주의 성향(B) 상호작용 (A*B)	1.12	.43	.25	2.62*					
		.15	.10	.14	1.52					
		-.43	.55	-.07	-.79					

****p*<.001, ***p*<.01, **p*<.05

<문화성향 척도>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경쟁은 삶의 원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개인적 정체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에게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다들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척도>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2.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산다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의 삶처럼 살겠다.							

<PANAS>

문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조금 느낀다	보통 이다	많이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1. 흥미진진한					
2. 과민한					
3. 피로운					
4. 기민한					
5. 흥분된					
6. 부끄러운					
7. 마음이 상한					
8. 원기 왕성한					
9. 강한					
10. 신경질적인					
11. 죄책감 드는					
12. 단호한					
13. 겁에 질린					
14. 주의 깊은					
15. 적대적인					
16. 조바심 나는					
17. 열정적인					
18. 활기찬					
19. 자랑스러운					
20. 두려운					